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  
감  
  
향  
상  
을  
  
위  
한  
  
피  
아  
노  
  
음  
향  
  
1  
일  
  
5  
분  
  
노  
출  
  
연  
구

송  
지  
은

2  
0  
1  
7

석 사 학 위 논 문

음감 향상을 위한 피아노 음향 1일 5분 노출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 Study on Piano Sound Exposure for Five Minutes  
Every Day for the Improvement of Sense of Pitch.

-Focused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송 지 은

2017년 2월

송 지 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 목 차

국문 초록 .....	ii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제한점 .....	4
4. 선행연구 .....	4
II. 이론적 배경 .....	8
1. 음악에서 음(音)의 중요성 .....	8
2. 아동기의 음악 발달 과정 .....	8
3. 청음교육 .....	10
4. 음감교육 .....	12
III. 연구방법 .....	14
1. 연구대상 .....	14
2. 측정도구 .....	14
3. 연구절차 .....	15
4. 자료분석 .....	29
IV. 연구결과 .....	30
1. 피아노 음향을 활용한 1일 5분 노출이 음감에 미치는 영향 .....	30
V. 결론 및 제언 .....	32

참고문헌 .....	34
ABSTRACT .....	36
부 록 .....	38

국 문 초 록

음감 향상을 위한 피아노 음향 1일 5분 노출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송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치 노

현대 사회에서 점차 필요하고 요구되는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을 갖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예술을 통해 길러지는 감수성과 인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중 음악은 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분야로 우리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다스리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이다.

음악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듣는 능력이다. 청음 능력은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8-9세에 발달시키기 좋다. 그 이후에 교육은 가능하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음악 교육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년별 지도 요소를 구분하고 다양한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음악을 다방면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음악 수업은 단순히 제재곡을 익히고 부르는 데 그쳐있는 경우

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청음 교육 중 음감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주 동안 매일 5분씩 피아노 음향 노출을 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음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학생들에게 적용할 음감 활동은 기존 음악교육학자들의 방법론을 고찰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알맞은 놀이를 활용한 활동을 개발하되 수업 지도안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 교사가 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짧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리·제시하였다.

음감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음 기억하기, 도레미 송, 두 가지 음 구별하기, 마음으로 음 기억하기,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상행/하행 연습, 게이름 친구, 음 맞추기 활동 이렇게 총 8가지 활동을 제시하였다. 활동 목표와 활동 방법을 제시하였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활동에 따른 학생의 반응, 활동 적용 시 유의점을 함께 정리하였다. 8가지 활동은 독립적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활동이 익숙해지면 여러 활동을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음감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활동은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가 저학년 시기 음감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실제로 적용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음감 향상, 피아노 음향 노출, 음감 활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고 한다. 그만큼 소리와 인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리를 듣는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음악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생활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음악은 가장 효과적인 미래의 의약품’이라고 미국의 음악교육가 돈 캠벨<sup>1)</sup>은 말하였다. 상황, 개인의 기분에 따라 음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음악은 음(音)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 예술이기에 우리는 음의 흐름인 음악을 자연스럽게 듣고 느낄 수 있다. 즉, 음과 음악 그리고 삶은 자연스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청감각은 8~9세의 시기에 가장 절정을 이룬다. 청감각은 다른 감각과 비교했을 때 가장 이른 시기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감각이 가장 예민할 때에 적절한 교육을 하게 되면 음악적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다양한 음악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청감각을 발달시키면 아이들은 음감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sup>2)</sup>

음악에서 중요한 음(音)을 이해하는 능력인 음감을 키우는 것은 음악을 보다 넓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음감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음악을 이해할 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듣는 것을 넘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3)</sup>

1) Don Campbell, 저명한 음악가 나디아 불랑제에게서 수학한 돈 캠벨은 평생 동안 음악의 혁신적 힘에 대해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

2)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사, 1983), 214쪽.

3)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음악심리학』, 최병철·방금주역 (서울: 학지사, 2001), 109쪽.

실제로 좋은 상대음고를 지녔다는 브래디(Poul Brady, 1970~)라는 음악가는 오랜 훈련을 통해 도(C)음을 내적 기준으로 얻게 되었고 13년 동안 이 음고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내적 기준음을 바탕으로 한 상대음고 능력으로 다른 음고들을 정확히 판단했다고 한다.<sup>4)</sup>

이렇게 청음·음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우리나라 즐거운 생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음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 측면과 학생의 발달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저학년 때 청음 교육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1학년부턴 6학년까지 교과서를 살펴보면 지도해야 할 음악 개념들을 학년별 요소로 구분하여 놓기만 했을 뿐 실제 수업에서는 대체로 제재곡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에 나온 영역을 익히는 데 그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시기별 강화해야 할 음악 교육이 있는 데 교육과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저학년 시기 음감 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안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음감 교육이 언제 행해질 때 가장 효과적인지, 알맞은 시기에 교육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셋째, 기존 음악 수업의 형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음악은 주지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새로운 수업 방법을 배우고 시도하려는 경우가 주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다 보니 음악 수업은 단순히 듣고 따라 부르는 형태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방식의 음악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음감 교육의 중요성과 음감 활동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음감 활동을 고안할 필요가 있고, 음악 수업이 아니더라도 생활 안에서 놀이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면 학생들이 좋은 음감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피아노 음향을 매일 5분씩 다

4) 이석원, 『음악마인드과학』 (서울: 음악세계, 2002), 121쪽.

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킴에 따라 음감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피아노 음향 노출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한 것은 수업 시작, 마무리,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음감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사도 알맞은 시기에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음감 교육을 할 수 있고 수업 지도안이 아닌 짧은 활동들을 개발함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즐겁게 음감 활동에 참여하면서 음감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음감 교육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음감 향상을 위해 피아노 음향을 매일 5분씩 노출하는 활동을 개발·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감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음감 지도 방법과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음감 교육을 위하여 음악 교육학자들의 방법론을 살펴보았고, 그 중 코다이의 손기호와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를 연구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피아노로 실음을 듣고 음을 맞추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제시하였다.

넷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청음 수업을 수업 지도안의 형태로 개발한 반면, 본 연구자는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간단히 음감을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발·정리하였다.

다섯째, 총 9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수준부터 차례로 제시하였다. 활동이 익숙해지면 다양하게 활동을 섞고 응용하며 활용 가능하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청각각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투리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정리하였다.

두 번째, 청음과 관련된 요소는 가락, 리듬, 빠르기,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으나 1학년 시기에 가장 발달시킬 수 있는 가락 요소 중 음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인 1학년 한 개 반 총 26명으로 제한하였고, 음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 사전·사후 검사지를 연구 대상 수준과 연구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 본 연구는 15주간에 걸쳐 적용·진행되었는데 좀 더 정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음감 연습 시 음계는 가운데 ‘도’(middle C)를 기준으로 1옥타브 이내로 한정하였다.

### 4. 선행연구

윤은미<sup>5)</sup>는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감, 리듬감 및 신체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 신체 표현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오디’는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모델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비교집단 유아에게는 유치원 기존의 음악 활동을 실시하고, 실험집단은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향상 정도

5) 윤은미,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감, 리듬감 및 신체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제33호, 2007.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교집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음감, 리듬감, 신체표현력에서 향상을 보여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정희<sup>6)</sup>는 ‘몬테소리의 음감벨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감청취력에 미치는 효과’에서 4세,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음감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령에 따른 음감청취력 향상 정도와 선행 음악학습 경험과 음감청취력 향상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4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평균적으로 사전과 사후의 변화량이 높게 나타났고 선행 음악학습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감청취력 변화량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몬테소리 음감벨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4세 유아와 선행 음악학습 경험이 없는 유아들의 음감청취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연옥<sup>7)</sup>은 ‘단계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청음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청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음능력이 신장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학년이 음악적 개념이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 개념을 학습하고 그 후에 음악적 개념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학년 특성에 맞게 놀이를 함께 병행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저절로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상미<sup>8)</sup>는 ‘일정한 청음 훈련이 유아의 음감 및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만 4세, 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청음 훈련이 유아의 음감 및 리듬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했을 때 실험집단이 사후 검사에서 음감, 리듬감의 향상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유아기는 청음 학습의 최적기이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기면서 꾸준하게 청음 훈련을 실시한다면 음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양수영<sup>9)</sup>은 ‘청음력 향상을 위한 음악 놀이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1

---

6) 박정희, “몬테소리의 음감벨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감청취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7) 배연옥, “단계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청음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8) 김상미, “일정한 청음훈련이 유아의 음감 및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 만 4-5세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놀이 활동을 통한 청음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관련 교육 이론, 2009 개정 음악과 ·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모형을 만들었다. 즐거운 생활과에서 음악과 영역을 추출하였고 단원 · 차시별 제재곡을 바탕으로 청음 지도 요소를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놀이 활동을 개발하였고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지은<sup>10)</sup>은 ‘시창과 청음 훈련을 통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음감 신장 방안 연구’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 중 시창과 청음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현재 시창과 청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음감 형성과 가장 관련있는 음정과 화음 청음에 중심을 두어 교과서 제재곡을 활용한 시창과 청음 지도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조동효<sup>11)</sup>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효율적인 시창 · 청음 지도방안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개념 요소를 중심으로 8차시의 시창 · 청음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개념학습을 하고 시창 · 청음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에 나타냈으며 단기적인 교육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된 지도안을 바탕으로 학년별 습득해야 하는 음악 개념에 알맞는 활동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혜란<sup>12)</sup>은 ‘시창 · 청음 학습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 수업 지도방안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위한 시창 · 청음 학습 활동을 개발하였다. 교육학자들의 방법론과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시창 · 청음 수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순하게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이 아닌 음악적 개념을 학습하고 시창 · 청음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음악 수업의 의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음 교육 대상이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청음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

9) 양수영, “청음력 향상을 위한 음악 놀이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0) 박지은, “시창과 청음 훈련을 통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음감신장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1) 조동효, “초등학교 저학년의 효율적인 시창 · 청음 지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2) 오혜란, “시창 · 청음 학습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수업 지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효과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음 교육 중 음감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고 기존 연구들이 수업 지도안 개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음감 활동이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음악에서 음(音)의 중요성

음악은 리듬, 선율, 화성의 3요소의 단순 합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이다. 여러 가지 음들은 모여서 하나의 음렬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화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음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악기나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소리로 나타난다. 음악을 구성하는 음(音)은 다양한 조합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며 사람이 가진 음감을 고려한다면 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은 무한하다.<sup>13)</sup> 이처럼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음감을 키운다면 음악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음감을 크게 절대음고와 상대음고로 구분하는데 연구가들은 절대음고를 갖기 위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피아노 음을 판단하는 경험이 음채도에 민감해지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sup>14)</sup> 절대음고, 상대음고와 같이 음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면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 2. 아동기의 음악 발달 과정

인간의 발달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지만 그 중 아동의 인지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는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학자들에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은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발달 과정을 이론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후 음악교육은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sup>15)</sup>

13)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음악심리학』, 최병철·방금주역 (서울: 학지사, 2001), 33쪽.

14)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앞의 책, 109쪽.

15) 김종서, 『교육연구의 방법』 (서울: 배영사, 1989), 24쪽.



피아제는 크게 인지 발달 과정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나누었다. 그 중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음악적 성장은 다음과 같다.

#### 1)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2세부터 7세까지 해당하며 아동의 음악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교사와 부모가 적절한 음악 체험을 제공했을 때 소리의 음높이, 셈여림,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흐름결과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들리는 소리도 정확하게 따라 낼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가장 기초적인 음악 능력인 청각각과 반응력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음악적 개념에 초점을 둔 활동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래 따라 부르기, 악기 소리를 듣고 표현 대상 알아맞히기, 흐름결 듣고 따라 손뼉치기, 청음 놀이하기, 단순한 음악 들으며 음악의 특징 따라 무용하기, 노래 빠르기에 따라 걷거나 뛰기, 신체 동작과 관련된 음악 놀이, 청각 및 촉각을 이용한 음악 놀이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청각각과 반응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 2)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7세부터 11세까지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서도 폭 넓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음악적 개념이 뚜렷하게 발달하고 음악적 현상의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적절한 음악 체험을 제공한다면 인지적 측면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단계이다. 감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는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분화시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며 위인에 대한 존경심,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심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감정적 측면도 성숙시킬 수 있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오는 7세의 경우, 음악의 셈여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흐름결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 상상력이 왕성해지는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음악 요소

의 보존 훈련으로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이 지니는 독특한 흐름결의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기, 청음 놀이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단순한 음악 듣기의 활동 등이 권장된다.

8~9세에는 청각각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기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각 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손의 근 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며, 수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여 음계 및 음표의 수리적 조직에 적응할 수 있고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청각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놀이,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 배우기, 여러 종류의 음악 듣기 등과 같이 다양한 음악 체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10~11세에는 아동들이 집단에의 소속에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관련하여 음악적으로는 화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중주, 중창활동이나 합주, 합창활동 등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청음교육

#### 1) 청음의 개념

청음이란 귀의 훈련을 위하여 가락을 듣고 리듬, 박자, 조, 음 이름 등을 알아내거나 악보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리듬이나 멜로디, 하모니 등을 듣고 악보에 받아쓰는 일이며 보통은 단선율이나 2~4성의 짧은 악곡을 노래, 연주하는 것을 악보로 받아쓰게 하는 일이 많다. 이 활동은 음악의 기초훈련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sup>16)</sup>

16) 세광음악출판사, 『표준음악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740쪽.

## 2) 청음의 종류<sup>17)</sup>

- ① 리듬 청음: 민음표의 1박 단위부터 시작하여 점차 점음표의 복합 박자, 변박자로 가며 리듬만 듣고 적기
- ② 음고 청음: 음의 높고 낮음을 듣고 적기, 온음계로 시작하여 반음계가 섞인 음정을 듣고 적기
- ③ 선율 청음: 박자에 의한 리듬으로 멜로디 듣고 적기, 단선율 청음은 한 성부의 멜로디를 듣고 적기, 다선율 청음은 2~4성부를 함께 듣고 적기
- ④ 화음 청음: 장조·단조에 포함되는 3화음과 딸림7화음 기본형과 자리바꿈 등의 분산화음과 동시화음 듣고 적기
- ⑤ 음색 청음: 각 악기의 특성 및 음빛깔을 듣고 구별하기

## 3) 청음 교육의 중요성

인간의 청감각은 시각에 비해 분화 속도가 빠르며 가장 이른 시기에 발달하기 때문에 청음 교육 시기는 빠른 것이 좋다. 청감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적절한 청음 교육을 하게 되면 아동들의 청감각은 뛰어난 발달을 보이고 그로 인해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아동기에는 음악적 경험과 자신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음의 판별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한다. 8~10세경에 청감각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의 음악 교육은 듣고 치기 등의 간단한 훈련이 효과적이다. 이 시기에 청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훈련에 대한 시간이 더 요구되며 효과적으로 청감각이 발달되기 힘들다.<sup>18)</sup>

초등학교 저학년은 청감각, 반응력, 어휘력, 상상력, 기억력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청음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청음은 음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가창이나 기악 활동, 창작 활동의 근본이 되고 음악적 집중력과 기억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sup>19)</sup>

더 나아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들으려는 마음을 자극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정서

17) 원 희, 『코다이와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1994), 69쪽.

18) 유덕희, 앞의 책, 214쪽.

19) 양수영, 앞의 논문, 5쪽.

적으로 안정된 심성과 잠재된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다.<sup>20)</sup>

이렇듯 초등학교 시기의 청음 교육이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음감 교육

##### 1) 절대 음고

절대 음고는 음악적 음고(musical pitch)를 주어진 기준음에 비교하지 않고도 식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일정한 기준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어진 음을 정확한 피치로 노래하거나 소리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1)</sup> 하지만 개별 음에 대한 기억력이 높아 조옮김을 했을 때에는 상대음감보다 음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절대음고에 대해 유전론자와 학습론자가 달리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학습론자들은 훈련에 의한 후천적 학습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음악학자 데이빗 휴런(David Huron)은 절대음고를 지닌 사람은 음악 속의 빈도가 많은 음에서 음을 더욱 빠르게 인식하며, 이는 음 노출 빈도가 높음에 따라 절대음고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라 말하였다.

약 600명의 음악가들을 조사한 결과 절대음고를 지닌 사람의 대부분이 6세 이전에 음악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며<sup>22)</sup> 10세 이후의 절대음고 교육은 그 이전의 시기보다 효과를 보기에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음감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0) 양성연, “듣기교육 활동이 유아의 청음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8쪽.

21) 조동효, 앞의 논문, 14쪽.

22) 박현주, “실음 인지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0쪽.

## 2) 상대 음고

상대 음고는 음정이나 음계에서의 위치(scale degree)를 이름 붙이는 능력을 말한다. 절대음고와 다른 점이라면 음을 판단할 때 기준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이다. 음악가 브래디(Poul Brady)는 오랜 훈련을 통하여 상대음고를 지니게 되었고 'C'를 내적 기준음으로 얻어 다른 음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sup>23)</sup> 상대음고는 음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음악 속의 음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음악의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처럼 절대음고와 상대음고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르게 교육하여 음감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음감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음감을 확립시키기에 알맞은 학습자의 나이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연령별 특징에 알맞은 음감 교육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

23) 이석원, 앞의 책, 121쪽.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S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중 음악 학원 등 선행 음악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명이었고 나머지 학생은 음악 학습을 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경우였다.

#### 2. 측정 도구

기존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음감 검사지로 대부분 고든(Gordon)이 개발한 PMMA<sup>24)</sup> 검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학생의 음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절대음감, 상대음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절대음감, 상대음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연구 실행 후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음감 검사 12문항 중 6문항은 1음, 6문항은 2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같은 박자로 3번 들려주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7~12번 문항 중 7~9번 문항은 2음을 펼쳐서 연주하고 10~12번 문항은 2음을 동시에 연주하여 2음을 연결 지어 들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이다. 연구자가 직접 피아노로 문제를 들려주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4) PMMA(Th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는 고든이 개발한 음악적성 검사로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이 검사의 특징은 음악적 지식이 없는 아동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연습문제를 포함해서 약 9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1> 음감 검사지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음감	1-2개의 음을 들려주며 똑같은 박자, 리듬으로 연주함.	1~3번 문항- 1음(기준음 제시 안함) - 절대음고 변별 4~6번 문항- 1음(기준음 도(C)음 제시) - 상대음고 변별 7~9번 문항- 2음(펼침화음) 10~12번 문항- 2음(모음화음)

### 3. 연구 절차

#### 1) 실험설계

연구자는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을 다양한 음감 활동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등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하게 음감 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반복 노출하였다.

#### 2) 사전 검사

사전 검사는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음악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4월 4일 음감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피아노 음향을 통한 1일 5분 음감활동 적용

피아노 음향으로 매일 5분씩 음감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표-2>와 같이 총 8개의 활동을 활용하였다.

① 피아노 음향을 통한 1일 5분 음감활동 내용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을 통한 음감 향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실험은 2016년 4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주간에 걸쳐 매일 실시되었다. 피아노 음향을 통한 1일 5분 음감 활동은 수업 시작, 마무리 시간 또는 즐거운 생활 수업과 연계하여 매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피아노 음향을 통한 1일 5분 음감향상 활동 프로그램을 다음 <표-2> 음감 향상 활동 프로그램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표-2> 음감 향상 활동 프로그램

	활동명	활동 목표
1	음 기억하기	음(C, A)을 외움으로써 음(C, A)을 기억하고 C, A음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다른 음을 인지하는 상대음고를 기른다.
2	도레미 송	도레미 송을 활용하여 코다이 손 기호를 익힘으로써 음의 높이와 성질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3	두 가지 음 구별하기	5도, 3도, 2도의 음을 변별할 수 있다.
4	마음으로 음 기억하기	내청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음감을 기른다.
5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음 높이를 변별하고 음의 관계 파악 능력을 기른다.
6	상행/하행 연습	음의 간격을 인식하고 정확한 음을 내는 능력을 기른다.
7	게이름 친구	자신이 맡은 음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절대음고를 기른다.
8	음 맞추기 놀이	놀이를 통하여 즐겁게 음감을 기른다.



첫 번째 활동은 상대음고를 기르는 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음 기억하기’ 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C(도)음을 기억하고 보조적으로 A(라)음을 기억하는 연습을 통하여 기준음을 가지고 상대음을 찾을 수 있는 상대음고를 기르는 것이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3>으로 제시하였다.

<표-3> 음 기억하기

활동명	음 기억하기
활동 목표	음(C, A)을 외움으로써 음(C, A)을 기억하고 C, A음을 기준음으로 활용하여 다른 음을 인지하는 상대음고를 기른다.
활동 방법	<p>1. C(도)음 기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 초반 4주 동안은 음감 활동 시작 시 C음 외우기를 한다. 초반에는 피아노로 C음 하나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도’ 소리 내는 활동을 한다.</li> <li>- 익숙해지면 피아노를 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도’ 음을 소리 내보고 피아노 음향으로 비교 확인한다.</li> <li>- 음 기억 활동은 모둠별, 분단별로 적용하며 자세하게 피드백 할 수 있다.</li> <li>-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도’ 음을 소리 내어 부른다. (반주 코드를 바꾸는 동안 학생들은 ‘도’ 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li> </ul> <p>*참고: &lt;악보1 - C음 기억하기 반주&gt;</p> <p>2. A음 기억하기: A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한다.</p>
활동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첫 날, 4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C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었는데 활동이 반복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C음 기억하기를 활동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음을 기억함을 알 수 있었다.</li> <li>- C음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A음 기억하기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C음 기준에서 A음 기준으로 피아노 반주패턴을 바꿨을 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A음을 찾아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상대 음고가 길러짐을 알 수 있었다.</li> </ul>
적용 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반복하는 활동이기에 학생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대충 소리를 내면서 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귀 막고 소리 내기’ 활동을 하면 보다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li> </ul>

다음의 <악보-1>은 학생들이 기준음을 익히기 위해 피아노 반주와 함께 연습하고자 만든 것이다. I, IV, VI의 화음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음 변화 속에서도 학생들이 정확히 C음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악보-1> C음 기억하기 반주

두 번째 활동은 음의 높기와 성질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도레미 송’을 이용하여 코다이 손기호를 익히는 활동이다. 코다이 손기호는 음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상대음고를 기르기 위한 내청훈련에 활용하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4>로 제시하였다.

<표-4> 도레미 송

활동명	도레미 송
활동 목표	도레미 송을 활용하여 코다이 손 기호를 익힘으로써 음의 높이와 성질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활동 방법	<p>1. 도레미 송을 활용한 코다이 손 기호 익히기</p> <p>*참고: &lt;악보2 - 도레미 송&gt;</p> <p>- 가사에 게이름이 나올 때, 게이름에 해당하는 손 기호를 왼손, 오른손 2 박씩 손끝을 마주보게 움직인다. 게이름에 따라 손 기호의 위치도 변화시키며 불러야 한다. (도- 가슴 높이에서 시작)</p> <p>2. 음의 성질을 익히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상대음감을 기르기 위한 내청훈련 시 손기호를 활용하면 좋다.</p> <p>예) ‘도’에서 ‘라’ 음을 찾을 때 ‘레’부터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손 기호와 내청을 하며 ‘라’ 음을 찾는 방법</p>
활동 반응	<p>- 저학년이어서 손동작과 함께 하는 노래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p> <p>- 3번 활동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쉽게 노래와 손 기호를 익혔다.</p>
적용 시 유의점	<p>- 처음에는 손 기호와 함께 노래를 익히는 데 흥미를 보인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손 기호가 재미있어 장난스럽게 활동이 흘러가기도 한다. 손 기호, 손의 높이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에 유의하며 노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p>

코다이 손기호를 익히는 노래로 도레미 송을 선택한 것은 다(C)장조의 음계들이 대부분 순차진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악보-2>로 제시하였다.

<악보-2> 도레미 송

3 C G7  
도 는 두 주 먹 줘 고 레 는 지 붕 만 들 고

7 C G7  
미 는 다 리 만 들 고 파 는 손 가 락 아 래

세 번째 활동은 음의 간격과 2음을 변별하는 ‘두 가지 음 구별하기’ 활동이다. 가장 많이 듣는 5도, 3도, 2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C(도)음을 기준으로 5도, 3도, 2도를 익히는 데 초점으로 맞추고 익숙해지면 다른 음을 기준으로 2음 변별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5>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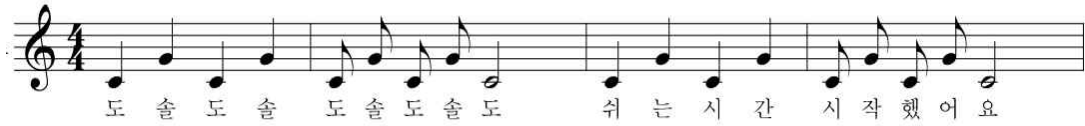
<표-5> 두 가지 음 구별하기

활동명	두 가지 음 구별하기
활동 목표	5도, 3도, 2도의 음을 변별할 수 있다.

<p>활동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음으로 정한 C음을 가지고 피아노로 5도, 3도, 2도 순서대로 들으며 변별하는 활동을 한다.</li> <li>예) 5도: 도솔, 파도’</li> <li>3도: 도미, 미솔, 파라</li> <li>2도: 도레, 미파, 파솔</li> <li>-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5도, 3도, 2도 익히기를 할 수 있다.</li> <li>*참고: &lt;악보3 - 쉬는 시간 송&gt;</li> <li>- 모음화음, 펼침화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한다.</li> </ul>
<p>활동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기준음 C음이 완전히 외운 상태가 아닐 때는 두 가지 음을 구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li> <li>- 기준음 C음이 익숙해지자, 내청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음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5음, 3음, 2음은 반복적으로 듣고 부르기 활동을 통하여 연구 기간 마지막 즈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C음을 기준으로 하는 2음은 쉽게 구별했다.</li> <li>- 다만, D, F음을 기준으로 하는 5음, 3음, 2음은 구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li> <li>- 정확한 음을 맞이지 못하더라도 음의 간격을 맞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예) 문제: 미, 시 / 학생 답: 파, 도’</li> <li>- 쉬는 시간 송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피아노를 치다가 시간이 되면 스스로 쉬는 시간 송을 피아노로 치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라 부르며 쉬는 시간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li> </ul>
<p>적용 시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두 가지음을 피아노로 모두 듣고 부르기를 한다.</li> <li>- 점차 손 기호, 내청활동을 활용하여 스스로 음을 변별하는 단계를 거쳐 상대음고를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li> <li>- 정확하게 2음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음의 간격을 맞히는 학생에게는 음의 간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칭찬해준다.</li> </ul>

<악보-3> 쉬는 시간 송

- 쉬는 시간 시작 송



- 쉬는 시간 마침 송



네 번째 활동은 상대음고를 기르기에 필요한 내청훈련 활동인 ‘마음으로 음 기억하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교사와 함께 연습을 많이 하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6>으로 제시하였다.

<표-6> 마음으로 음 기억하기

활동명	마음으로 음 기억하기
활동 목표	내청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음감을 기른다.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레미 송을 활용하여 하나의 음에서 다른 음을 찾아갈 때 내청훈련을 활용한다.</li> <li>- 가창 활동 적용: 교사의 시범창 듣기 → 마음 속으로 따라 부르기 → 소리 내어 부르기</li> <li>- 손 기호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li> </ul>

활동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기호와 함께 하나씩 음을 찾아가는 활동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왔다.</li> <li>- 두 가지 음 구별하기 활동에서 하나씩 단계를 밟지 않고 한 번에 내청을 이용하여 음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li> </ul>
적용 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청훈련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 연습 때에는 기준음 C음을 교사/친구와 함께 잡고 다음 음을 찾는 단계가 필요하다.</li> <li>- 가창 활동에 적용할 때, 4마디 정도씩 나누어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li> <li>- 4마디씩 연습하고 1절씩 연습하는 단계를 거치면 보다 쉽게 활동을 따라올 수 있다.</li> </ul>

다섯 번째 활동은 음 높이를 변별하고 음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활동인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다. 저학년 수준에 맞는 쉬운 다장조 곡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학교에서 실로폰 활동을 하는 경우, 악기 연주 전 고정도법으로 노래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욱 연주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음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7>로 제시하였다.

<표-7>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활동명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활동 목표	음 높이를 변별하고 음의 관계 파악 능력을 기른다.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장조로 된 곡을 고정도법으로 노래한다.</li> <li>- 학교에서 실로폰 활동을 하는 경우, 항상 실로폰 연습곡(다장조)을 고정도법으로 노래한 후 실로폰 연주로 들어간다. 이로써 정확한 음을 인식하고 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li> </ul>

활동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은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하여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방법은 학생들이 즐겁게 음감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었다.</li> <li>-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고정도법으로 노래하지만 습득력이 매우 빨라 3번 정도 연습하면 노래의 선율과 계이름을 모두 외우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순한 다장조 실로폰 연습곡 기준 *예: &lt;악보-4&gt;)</li> </ul>
적용 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음감을 위하여 시작음을 정확히 잡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교사가 함께 시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li> <li>- 노래를 너무 빠르게 부르면 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알맞은 빠르기로 연습하여 일정한 음으로 노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li> </ul>

<악보-4> 다장조 실로폰 연습곡 '지구촌 한가죽'

솔 솔 미 미 파 라 파 파 미 솔 미 미 파 레 레

5  
솔 솔 미 미 파 라 파 파 미 솔 미 미 파 레 도

여섯 번째 활동은 정확한 음을 내도록 하고 음의 간격을 인식하도록 돕는 '상행/하행 연습'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진행하면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음과 그렇지 않은 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자신이 내는 음을 느끼며 정확한 음고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8>로 제시하였다.



<표-8> 상행/하행 연습

활동명	상행/하행 연습
활동 목표	음의 간격을 인식하고 정확한 음을 내는 능력을 기른다.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행: 도도, 도레, 도미, 도파, 도솔, 도라, 도시, 도도'(옥타브)도</li> <li>- 하행: 도도', 도시, 도라, 도솔, 도파, 도미, 도레도</li> <li>* 참고: &lt;악보-5&gt; 상행/하행 연습</li> <li>- 처음 연습할 때는 피아노 음을 듣고 피아노와 함께 소리를 엮어서 내는 연습을 한다.</li> <li>- 익숙해지면 '도'음만 피아노로 눌러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소리 내고 마지막에 피아노 음을 연주하며 비교·확인한다.</li> </ul>
활동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습 초반, '도'에서 바로 다음 음으로 도약하여 소리내기를 힘들어했다. 순차 진행으로 음감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익숙했으나, 상행/하행 연습이 도약 진행으로 이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어 했던 것 같다.</li> <li>- 연습이 익숙해지자 기준음 '도'만 피아노로 들려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소리내기를 했는데 다소 음높이를 낮게 내는 경향이 있었다.</li> <li>- 연습하면서 '도라'를 정확한 음으로 부르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li> </ul>
적용 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높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행/하행 연습 시 손 기호와 함께 알맞은 음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li> <li>- 음높이가 다소 낮을 때는 손으로 조금만 올려주는 표시를 해주거나 눈을 크게 뜨며 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소리 내는 연습을 하도록 안내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li> </ul>

<악보-5> 상행/하행 연습

- 상행 연습



- 하행 연습



일곱 번째 활동은 자신의 음감을 확인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인 ‘게이름 친구’이다. 솔래가 들려주는 피아노 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옮기는 활동으로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감을 익힐 수 있고 스스로 음감을 확인해볼 수 있는 활동이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9>로 제시하였다.

<표-9> 게이름 친구

활동명	게이름 친구
활동 목표	자신이 맡은 음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절대음고를 기른다.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모두가 의자만 가지고 동글게 모여 앉는다.(의자는 학생 수 하나 적게, 일어서 있는 한 명은 솔래 역할)</li> <li>- 교사가 순서대로 학생마다 게이름을 지정해준다.</li> <li>예2) 익숙해지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를 모두 부여할 수 있다.</li> <li>예1) 도, 미, 솔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경우: 원을 만든 학생을 돌면서 순서대로 도, 미, 솔, 도, 미, 솔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다.</li> <li>- 솔래인 학생은 피아노에서 정해진 게이름 중 하나를 친다.</li> <li>- 피아노 음을 듣고 해당 게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신의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를 제외한 다른 의자에 앉아야 한다.</li> <li>- 2개의 음을 쳐서 2개의 게이름 친구들이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li> <li>- 술래는 피아노 음을 치자마자 원 안으로 들어가 빈 의자에 앉아야 한다.</li> <li>- 자리에 못 앉는 1명의 학생이 술래가 된다.</li> </ul>
활동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감놀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듣고 음을 파악하여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적용 시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음을 듣고 움직이게 되면 혼란스러우므로 1개 음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게이름 개수를 추가하도록 한다.</li> <li>- 음감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게이름을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의존하여 놀이가 이뤄지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놀이 전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듣고 움직여 보도록 설명한다.</li> <li>- 음을 잘못 듣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듣고 자기와 같은 게이름 친구들을 파악하여 함께 움직여보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li> </ul>

여덟 번째 활동은 즐겁게 음감을 기를 수 있는 ‘음 맞추기 놀이’ 활동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음을 맞춰가며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할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음을 맞추는 데 성공 경험을 느껴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활동 설명은 아래 <표-10>으로 제시하였다.

<표-10> 음 맞추기 놀이

활동명	음 맞추기 놀이
활동 목표	놀이를 통하여 즐겁게 음감을 기른다.
활동 방법	<p>1. 어떤 음일까요?(1음, 2음)          -방법: 피아노로 1음, 2음(펼침, 모음화음)을 들려주고 모듬별/개인별 맞추기          -학생이 맞힐 때는 들은 음의 이름을 말하거나 직접 피아노로 그 음을 쳐 보게 할 수도 있다.</p> <p>2. 손 기호 퀴즈          -방법 가. 교사가 손기호로 노래하면 고정도법으로 노래하기          나. 피아노 음을 듣고 학생은 손기호로 대답하기</p> <p>3. 내청을 이용한 퀴즈          -방법: 기준음 C음을 들려주고 문제 내는 음은 내청활동을 이용하여 음 찾고 소리내기</p>
활동 반응	<p>- 학생들이 음감 활동 중 가장 즐겁고 집중하며 참여했던 활동이다.</p> <p>- 평소 눈에 띄지 않았던 음감이 뛰어난 학생들을 찾을 수 있던 활동이었고, 그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활동이기도 했다.</p> <p>- 퀴즈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만큼 몰입도가 높고 보다 즐겁게 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p>
적용 시 유의점	<p>- 음감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만 맞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p> <p>- 음을 맞추었을 때 단번에 정답이라고 말해주기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p> <p>- 개별, 모듬별, 분단별, 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놀이를 진행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p>

#### 4) 사후 검사

연구의 활동을 4개월 동안 모두 적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방법과 내용은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사전 · 사후 검사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 전체 표본 수가 30이 안되므로 비모수 기법인 Wilcoxon Signed-Rank test<sup>25)</sup>를 실시하였다.

---

25) 대응표본 t-검정의 비모수검정으로 변수 분포가 정규분포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

## IV. 연구 결과

### 1. 피아노 음향을 활용한 1일 5분 노출이 음감에 미치는 영향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 활동을 통한 학생의 음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음감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를 Wilcoxon test를 활용하여 <표-11>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에 따른 음감 사전·사후 검사 변화, <그래프-1> 음감 사전·사후 검사 평균 순위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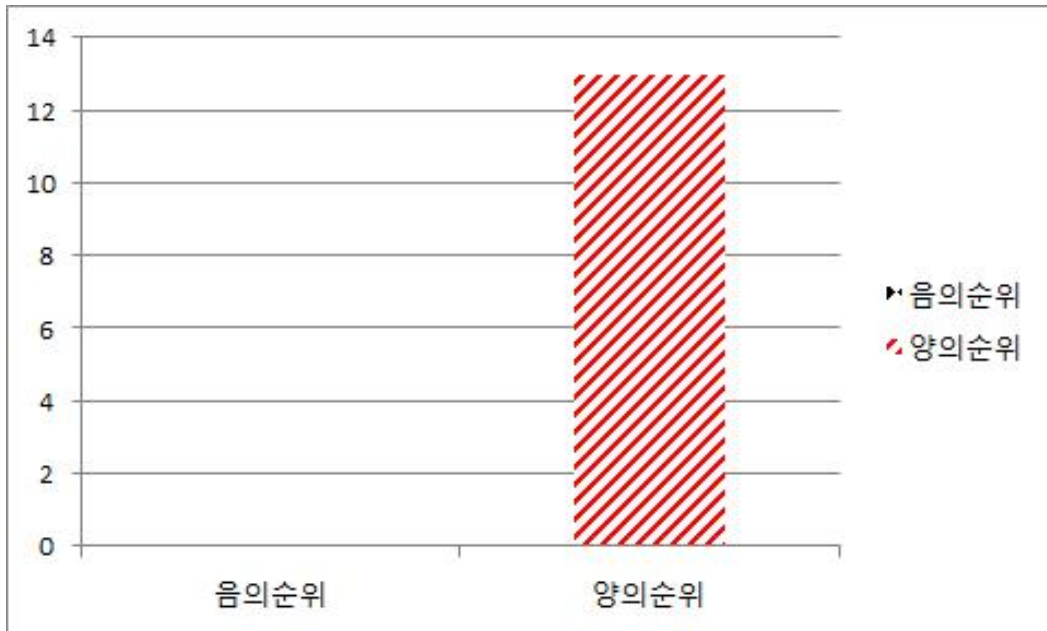
<표-11>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에 따른 음감 사전·사후 검사 변화

		N	평균 순위	Z <sup>26)</sup>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음의순위	0a	.00	-4.388 (.000)
	양의순위	25b	13.00	
	등순위	1c		
a. 사후 검사< 사전 검사, b. 사후 검사> 사전 검사, c.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음의 순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의 순위는 13.00으로 나타났다. 등순위는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Z값이 -4.38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보다 더 높은 평균 순위를 보이고 있다.

26)  $Z = (\text{순위합계} - 0) / \sqrt{\text{윌콕슨분포표의 모표준편차}}$

<그래프-1> 음감 사전 · 사후 검사 평균 순위



## V. 결론 및 제언

음악은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청음(聽音)은 음악 교육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음감을 기르기 위하여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자 음감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 활동을 적용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에 포함된 음악 활동은 노래 익히기, 리듬 치기, 몸으로 표현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는 점을 반영한 음악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음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지도 방법을 모르는 교사들도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음감 향상을 위한 활동 연구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음감 향상을 위한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 활동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수업 전, 후, 쉬는 시간 등 쉽게 자투리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5분 이내이다. 그리하여 5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음감 활동 8가지를 마련하였고 활동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여러 활동을 묶어 수정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감 향상, 청음 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 지도안 개발을 하였는데 이런 점과 차별성을 두어 본 연구는 학생, 교사가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매일 5분씩 하나의 음악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발·정리하였다. 또한, 음감 활동 시 학생들이 음을 정확히 알고 맞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 활동 중 매일 빠지지 않고 적용한 활동은 음감을 기르기 위해 구상한 ‘음 기억하기’ 활동이었다. 연구가 시작되었던 4월과 마무리되었던 7월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준음 C음을 피아노 음향 없이 스스로 기억하여 소리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활동이지만 반주의 패턴 변화, 템포 변화, 귀를 막고 소리 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음 기억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손 기호로 음을 표현하는 ‘도레미 송’ 활동을 통해 음의 성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 맞추기 놀이’에서 손 기호로 답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에 더 집중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가지 음 구별하기’ 활동 중 5도 인식을 위해 쉬는 시간 노래를 만들어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교사의 시범 없이도 쉬는 시간마다 스스로 5도 노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5도를 인식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감 향상을 위한 1일 5분 피아노 음향 노출 활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음 자체에 귀 기울이게 하고, 음의 성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 표본 대부분이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음감 향상을 보였으므로 1일 5분 음감 활동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음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음감 활동 중에 음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지 않도록 교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음감을 아우르는 청음 능력의 효과적 신장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감 활동뿐만 아니라 이후 단계적 청음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시별 지도안 개발도 좋지만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개발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알맞은 음악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며 경험을 쌓아간다면 학생들 또한 음악을 즐기면서 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1.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헤겔의 음악 미학』, 김미애역. 경기: 느낌이있는책, 2014.
2.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 방금주역. 서울: 학지사, 2001.
3. 세광음악출판사. 『표준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4. 원 희. 『코다이와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1994.
5.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음악의 지각과 인지Ⅱ』. 경기: 음악세계, 2013.
6.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사, 1983.

### 참고논문

1. 김상미. “일정한 청음훈련이 유아의 음감 및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 만 4~5세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2. 박정희. “몬테소리의 음감벨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감청취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3. 박지은. “시창과 청음 훈련을 통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음감신장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4. 박현진. “유아의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5. 배연옥. “단계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청음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6. 양수영. “청음력 향상을 위한 음악 놀이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7. 오혜란. “시창 · 청음 학습을 통한 효과적인 음악수업 지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8. 윤은미. “동작을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감, 리듬감 및 신체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제33호, 2007.
9. 조동효. “초등학교 저학년의 효율적인 시창 · 청음 지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 최유경. “조기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과 올바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1. 허은진. “아동기 조기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피아노 교육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4.

## A B S T R A C T

# A Study on Piano Sound Exposure for Five Minutes Every Day for the Improvement of Sense of Pitch.

-Focused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Song, Ji Eun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Chi No

The required education of modern society is not the knowledge-based education but the education that helps people get good personality.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is growing because sensitivity and personality raised by art are important to emotional stability. Music expressed in sound is the art that we can use to express and manage feeling.

The ability required for expressing and understanding music is diverse but the basic ability is listening ability. The age of 8~9 is most opportune for growing ear training ability. Though ear training education is possible over 9,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So, It is important to educate music in an appropriate moment.

In the elementary music curriculum, that seperates the content of grade and sets up diverse achievement standard to educate music in

various.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that students listen a song and repeat it in actual class.

So, this study sets up the subject that the method to improve sense of pitch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rs. For 15 weeks, I exposed piano sound for five minutes to participate in pitch activities joyfully.

The subject of study are elementary first graders. It is constructed that sense of pitch activities by considering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scholars.

And this study develops the activities using play, suggests simple activities to use shortly and easily.

There are 8 sense of pitch activities: remembering sound, do-re-mi song, distinction two sounds, inner listening, singing in pitch name, up and down practice, syllable names' friend and sound quiz.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activity goal and method, reaction of students and attention points. 8 activities are useful independently or able to mixed when students are accustomed to do that activities.

Activities developed for improving sense of pitch should be educated in the age of 8~9. And teachers should feel the importance of sense of pitch education. Then, this study expects that many students can get musical development.

key words: improvement of sense of pitch, piano sound exposure, sense of pitch activities.

[부록 1]

### 음감 검사지(사전/사후검사 교사용)

-안녕하세요, 이 평가는 여러분의 음악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로서 ‘음감’이 어떤지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잘 듣고 아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이 평가는 소리를 듣고 하는 시험이므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든 문제는 3번 들려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3번] 1음 변별(기준음 제시 안함)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의 음을 듣고 어떤 음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피아노 음을 듣고 어떤 음인지 계이름에 ○ 표시하세요.

먼저 연습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들려주는 피아노 음: 미 / 3번 들려준다. / 연습문제 풀고 학생과 정답 확인)

연습문제(미)            1번(도)                    2번(솔)                    3번(미)



[4~6번] 1음 변별(기준음 C 제시)

4번부터 6번까지는 기준음 C(도)를 듣고 그 다음 들리는 하나의 음이 어떤 음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음 C음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나오는 피아노 음이 어떤 음인지 계이름에 ○ 표시하세요.

먼저 연습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들려주는 피아노 음: 도(기준은C) 솔 / 3번 들려준다. / 연습문제 풀고 학생과 정답 확인)

연습문제(솔)      4번(파)      5번(라)      6번(레)



[7~9번] 2음(펼침화음) 변별

7번부터 9번까지는 두 개의 음을 하나씩 펼쳐서 연주할 겁니다. 펼쳐서 연주되는 두 개의 음을 듣고 어떤 음인지 2개의 계이름에 ○ 표시하세요.

먼저 연습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들려주는 피아노 음: 레라 / 3번 들려준다. / 연습문제 풀고 학생과 정답 확인)

연습문제(레라)      7번(도솔)      8번(미솔)      9번(도레)



[10~12번] 2음(모음화음) 변별

10번부터 12번까지는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할 겁니다. 동시에 연주되는 두 개의 음을 듣고 어떤 음인지 2개의 계이름에 ○ 표시하세요.

먼저 연습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들려주는 피아노 음: 미솔 / 3번 들려준다. / 연습문제 풀고 학생과 정답 확인)

연습문제(미솔)      10번(도솔)      11번(파라)      12번(파솔)



[부록 2]

**음감 검사지**(사전/사후검사 학생용)

( )학년 ( )반 이름 ( )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음을 잘 듣고, 게이름에 ○표시하세요.

1. 도 레 미 파 솔 라 시
2. 도 레 미 파 솔 라 시
3. 도 레 미 파 솔 라 시
4. 도 레 미 파 솔 라 시
5. 도 레 미 파 솔 라 시
6. 도 레 미 파 솔 라 시

◇ 선생님이 차례로 연주하는 음 2개를 잘 듣고, 게이름에 ○표시하세요. (○표 2개)

7. 도 레 미 파 솔 라 시
8. 도 레 미 파 솔 라 시
9. 도 레 미 파 솔 라 시

◇ 선생님이 동시에 연주하는 음 2개를 잘 듣고, 게이름에 ○표시하세요. (○표 2개)

10. 도 레 미 파 솔 라 시
11. 도 레 미 파 솔 라 시
12. 도 레 미 파 솔 라 시